



With You

2017 Summer

통권 25호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 소식이 연결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Contents



난민보호 캠페인
세계 난민의 날 03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난민과 건강 04
수혜자 이야기 09



With You가 만난 사람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시리즈 ②: 안젤리나 졸리 10



한국대표부 소식
기관 소식 + 후원자 Q&A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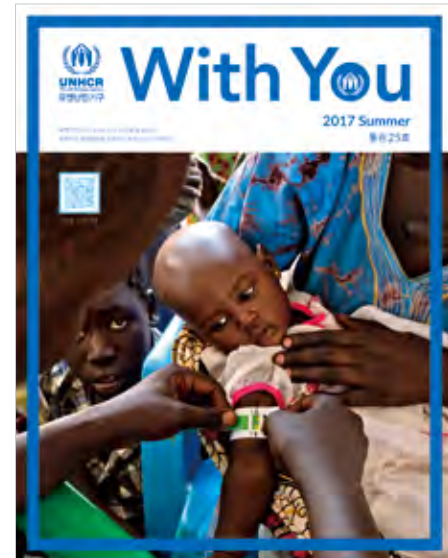


난민 배움터
기아 위기 4개국 긴급구호 14

고맙습니다
후원 신청서 15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난민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나의 메시지 16

Cover Story



생후 6개월 된 남수단 난민 아기 니야렛 뎅(Nyalet Deng)이 우간다 난민촌에서 영양실조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간다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피난 중인 남수단 난민의 수는 약 200만 명에 이르며, 그중 86%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오랜 분쟁과 가뭄으로 남수단 어린이 27만 명이 급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 UNHCR/F.Noy

발행인 나비드 후세인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7년 6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슬로워크

#WithRefugees

6.20 세계 난민의 날

매년 6월 20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난민 협약)이 채택된 지 50주년이 되던 2001년부터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매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전 세계 난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국제사회 및 시민의 관심과 후원을 독려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유엔난민기구는 2016년부터 #난민과 함께(#WithRefugees)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난민 어린이가 교육을 받고, 모든 난민이 일자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모든 난민 가족이 안전한 거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난민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난민과 함께(#WithRefugees) 캠페인은 난민을 위한 글로벌 컴팩트 채택을 목표로 2018년까지 계속됩니다. 우측 상단 QR코드를 통해 캠페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난민과 함께
캠페인 참여

“배움은 제게 큰 행복이에요.”

-미얀마 난민 샴쉬다-

미얀마 로힝야족 샴쉬다(Shamshida)는 모든 역경을 딛고 14세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의 기회를 잃은 샴쉬다에게 현재 수업시간의 일본일초는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사람들과 가장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입니다.”

-시리아 난민 아부-



“임시 거처에서 처음 밤을 보내던 날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주고 돌보기 시작했죠.”

-남수단 난민 조이스-



“나르세스를 처음 봤을 때 열세 살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베트남 난민 뚜이-

아부(Abu)는 고국 시리아에서의 분쟁과 폭력을 피해 자신의 레스토랑과 다른 모든 소중한 것들을 뒤로 하고 아내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부는 음식을 통해 현지인들과 소통 하면서 현지의 음식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이스(Joyce)는 그녀 자신도 고국 남수단에서의 분쟁을 피해 타지에서 살고 있지만, 전쟁 가운데 부모를 잃은 남수단 난민 소녀 조안(Joann)과 그녀의 여동생을 같이 돌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힘겨운 피난 생활 중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우간다 난민촌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고국 베트남을 떠나 캐나다에 정착한 난민 뚜이(Thuy)는 현재 캐나다에 들어오는 다른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난민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녀는 친구이자 멘토로서, 시리아 난민 소녀 나르세스(Narjes)가 캐나다에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난민과 건강

폭력과 질병에 맞서 건강한 삶을 꿈꾸다

말라리아, 영양실조, 홍역, 설사, 호흡기 감염, 이 질병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개발도상국 거주 5세 이하 난민 어린이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되고 있는 질병입니다.

폭격과 총탄을 피해 목숨을 걸고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은 이제 질병과 건강 문제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인구의 절반이 넘는 난민 아이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폭력, 난민 그리고 건강

분쟁, 폭력, 박해로 강제로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전쟁과 피난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더라도 적시에 필요한 치료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분쟁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해 많은 수의 인구가 한꺼번에 이동하거나 밀집해서 지내는 경우,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되기도 합니다.

숫자로 살펴보는 난민과 건강



560,902명

2017년 1분기
1차 의료 지원을 받은 시리아 난민 수
(난민 수요를 바탕으로 한 목표의 11% 수준)



15-20%

전쟁과 폭력의 트라우마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난민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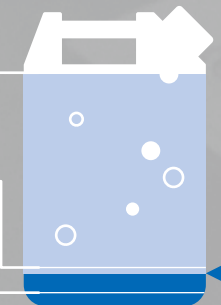
2,000만명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
4개국에서 기아 위기에
놓여 있는 난민의 수

우리가 쓰는 샤워 1회
물 평균량 120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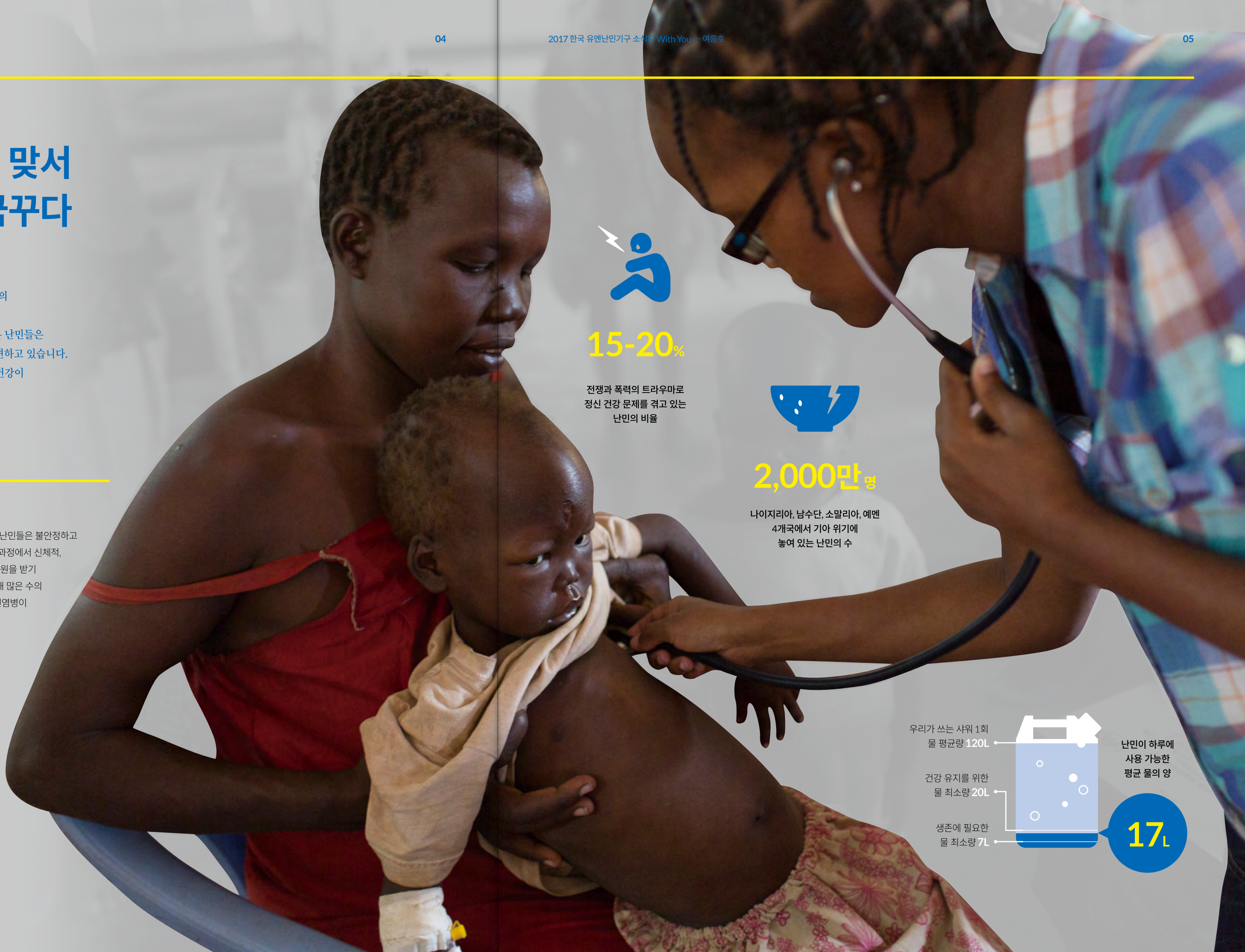
건강 유지를 위한
물 최소량 20L

생존에 필요한
물 최소량 7L



난민이 하루에
사용 가능한
평균 물의 양

17L



난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

난민의 건강을 위한 활동은 유엔난민기구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입니다. 1951년 난민 협약은 모든 난민이 비호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국제법에 의해 가장 높은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1차 치료에 중점을 두고 난민 건강 및 영양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료 및 영양 전문가의 협조 하에 난민의 필요 수준, 위험 요소, 취약성에 기반하여 건강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비전을 가지고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양질의 공공 의료 서비스

유엔난민기구는 예방 접종, 전문 진료, 응급 병원 치료,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과 같은 의료 지원 물품 배포 등을 통해 난민들에게 필수적인 1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들이 머물고 있는 비호국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용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난민과 수용국 지역단체 간의 평화로운 공존, 회복력 및 지속 가능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진료 및 치료 뿐만 아니라 전쟁과 분쟁, 박해로 인한 고통과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상담 치료,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들이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안전한 출산 건강 서비스와 에이즈(HIV) 예방 및 치료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서비스, 그리고 에이즈(HIV) 예방 및 치료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난민 여성과 소녀들에게 양질의 출산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 긴급 치료는 출산 중 혹은 출산 후의 사망률을 급격히 낮출 수 있으며, 또한 성인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 건강에 대한 교육은 산모 건강, 가족 계획, 성폭력 문제, 여성 할례, 성병, 에이즈를 포함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건강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개인의 종교, 윤리적 가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생명을 살리는 식량과 영양 지원

영양실조는 개발도상국 5세 이하 난민 아동의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영양 부족으로 인한 질병은 사전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은 사람들을 성폭력과 착취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불충분한 영양 섭취와 비타민, 미네랄 부족은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음식물 섭취가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유엔난민기구는 파트너 기관과 협력하여 난민 아동의 영양실조 테스트 및 치료, 치료식 및 영양식 제공, 건강한 식습관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모든 난민은 비호국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 1951년 난민 협약 중 -



4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 공급

피난길에 오른 난민들은 종종 깨끗하고 적합한 물과 위생 시설에 접근하기가 어렵고, 이는 난민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합니다. 식수가 부족해 더러운 물을 마셔야 하는 난민들은 콜레라, 이질, 소아마비, A형 간염, E형 간염 등에 노출되며, 이 질병들은 깨끗한 물과 위생시설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물과 위생(Water, Sanitation and Hygiene, WASH)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촌뿐만 아니라,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수백만 난민이 적절한 물과 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충분한 양의 깨끗한 물, 샤워 및 위생 시설, 비누, 여성 위생용품 등에 대한 접근은 질병 감염 및 확산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며,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전 세계 난민들에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 난민촌에 도착했을 때
깨끗한 물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유엔난민기구가 지어준 우물 덕분에
우리 여섯 가족이 마실 물이 생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단 난민 파티마-



#난민과 건강 새로운 삶을 얻게 된 난민 아기, 제나의 이야기



“저희 딸 제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난민 부모에게 찾아온 선물

아이의 탄생은 대부분의 가족에게 있어서 행복하고 축복받은 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메드(Ahmed)와 수마이야(Sumaiya)와 같은 시리아 난민에게 있어서 둘째 딸 제나(Jena)의 출산은 거의 비극으로 끝날 뻔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피해 이웃국가 요르단에서 피난 생활하던 중 서로 만나게 된 이들은 곧 결혼을 했고 첫째 딸 파라(Farah)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이들에게 둘째 아이 제나가 찾아왔습니다.

1.8kg의 작은 아기, 생존을 위해 싸우다

하지만 제나의 출산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임신 8개월째에 접어들었을 때 엄마인 수마이야에게 합병증이 찾아왔고 긴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수마이야는 자신의 수술 상처도 회복되기 전에 1.8kg밖에 되지 않는 작은 제나를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나는 폐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아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제나의 아버지, 아메드에게도 매우 고통스러운 2주였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건강도 매우 염려되었지만, 수술비 또한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메드는 난민 가장으로서 힘겨운 시간을 홀로 보내야 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아메드와 같은 난민들이 긴급 수술이나 병원 진료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소중한 참여가 어린 제나에게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인생의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제나와 같은 난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후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생의 기회, 수술비 지원

좌절 속에 빠져있던 아메드에게 유엔난민기구에서 긴급 수술비를 지원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뻐요. 유엔난민기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돈을 마련하지 못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제나는 현재 요르단 암만에서 가족과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이 어린아이는 아직 한 번도 발을 디더 보지 못한 고향 시리아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시리즈 ② 안젤리나 졸리



안젤리나 졸리 글로벌 특사 활동 더보기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는 누구일까요?

유엔난민기구의 친선대사(UNHCR Goodwill Ambassador, GWA)는 기구의 수장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더불어 유엔난민기구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선대사들은 자신의 유명세,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유엔난민기구의 활동과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현재 배우 정우성, 가수 바바라 헨드릭스, 배우 케이트 블란쳇, 작가 할레드 호세이니, 모델 알렉 웨 등 전 세계적으로 16여 명의 친선대사가 활동 중입니다. 이번 여름호 소식지에서는 두 번째 친선대사 시리즈로 안젤리나 졸리 글로벌 특사의 이야기를 후원자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인연의 시작

세계적인 스타, 여섯 자녀의 엄마, 영화감독, 여성인권 운동가,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특사. 16년 이상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한 안젤리나 졸리가 바로 이 빛나는 타이틀의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전쟁으로 인해 황무지가 되어버린 캄보디아에서

영화 〈툼 레이다〉를 촬영할 당시 처음으로 인도주의 활동에 관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난민을 돕는 인도적 긴급구호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안젤리나 졸리는, 촬영이 끝난 후 난민들을 도울 방법을 알고 싶다는 유엔난민기구의 문을 직접 두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유엔난민기구 워싱턴 사무소에서 교육을 받고, 시에라리온의 난민촌을 방문해 난민들을 만나면서 유엔난민기구와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캄보디아의 난민촌을, 곧이어 파키스탄을 방문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2001년 8월, 안젤리나 졸리는 난민들이 처한 힘겨운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서약과 함께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임명되었고,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활동한 결과 2012년에는 유엔난민기구 글로벌 특사로서 임명되어 오늘까지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난민을 만나기 위해 안젤리나 졸리가 방문한 곳은 미얀마, 태국,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을 비롯해 20개국에 넘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난민에게 희망을 전하다

안젤리나 졸리는 늘 난민과 함께였고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2016년 요르단의 아즈락 난민촌을 방문한 안젤리나 졸리는 전쟁 중 폭격으로 두 다리를 잃은 시리아 난민 소녀 리마르(Leemar)를 만났습니다. 리마르의 가족은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자 2013년 요르단으로 피난을 갔다가 항수병과 고난을 이기지 못해 다시 시리아로 돌아왔습니다. 1년 정도는 평온했으나 분쟁이 점점 악화되면서 가족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던 리마르의 집 위로 갑작스럽게 폭격이 쏟아졌고, 큰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큰 아들 왈리드(Walid)의 목숨과 막내딸 리마르의 두 다리를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시리아에서 아무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리마르는 요르단에 도착해서야 다리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는 어린 리마르와 그녀의 가족 곁을 지키며 따뜻한 위로와 용기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밖에도 안젤리나 졸리는 아즈락 난민촌에서, 내전으로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18번이나 수술을 해야만 했던 13세 소년 셀림(Selim)도 만났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최대 피해자가 된 어린 나이의 난민 아이들을 만나면서 안젤리나 졸리는 이들이 마주한 힘겨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요르단에 있는 난민의 절반 이상이, 제 자녀들과 비슷한 또래의, 18세 이하의 아이들입니다. 어느 부모와 마찬가지로, 제 아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상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젤리나 졸리가 폭격으로 두 다리를 잃은 시리아 난민 소녀 리마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UNHCR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다

안젤리나 졸리는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여 난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그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지난 16년간 다양한 국제 회의와 행사, 매스컴 등을 통해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과 의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매년 6월 20일



안젤리나 졸리가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연설하고 있다. © UNHCR/Mark Henley

세계 난민의 날 전후로 영상을 통해 대중들에게 난민보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도모하면서, 2016년 6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 국무부에서 난민 보호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데 이어, 2017년 초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국제 사회가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유엔난민기구와 함께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안젤리나 졸리는 제네바에 위치한 유엔난민기구 본부를 방문하여 글로벌 특사로서의 활동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곳에 오니 마치 집에 온 것 같아요. 저는 16년 전 이곳을 처음 방문했고, 그때 제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재 6,560만 명(2016년 연말 기준)에 달하는 전례 없는 전 세계 강제 실항민 수를 언급하며, 유엔난민기구와 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글로벌 특사로서 전 세계 난민 보호 활동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평생 유엔난민기구와 함께입니다(I am with you for life)."



글로벌 특사로서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와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UNHCR/Mark Henley

“난민들이 보여준 용기와
강인한 회복력, 그리고 존엄성은
인류가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정신입니다.”

- 안젤리나 졸리 -

함께 만들어가는 난민보호

난민을 포함한 전 세계 강제 실항민 6,560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은 128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가운데에는 유엔난민기구의 활동에 공감하고 전 세계적인 난민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와 같은 글로벌 특사의 노력이 있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해결같은 관심과 열정으로 오랜 기간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하고 있는 안젤리나 졸리 글로벌 특사의 활동이 나눔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전 세계 난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난민보호 활동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관 소식

2017 세계 난민의 날, 제3회 난민영화제 개최

지난 6월 24일,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난민지원네트워크는 제3회 난민영화제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개막식 축사에 참석한 나비드 후세인 대표는 관객들이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다양한 영화를 바탕으로 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기를 독려했으며, 가수 이한철이 참여한 개막공연은 영화제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이날 영화제에는 유엔난민기구 정우성 친선대사의 목소리를 통해 레바논에 살고 있는 한 시리아 가족의 삶을 살펴보는 <경계에서(Limbo)>, 주민과 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시칠리아 작은 마을을 담은 <구원(Salvation)> 등 유엔난민기구가 준비한 두 편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포함해 <나라 없는 국가>, <브링홈>, <Cast from the Storm> 등 총 다섯 편의 난민 소재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상영했습니다. <경계에서>와 <구원> 상영 후에는 감독 두 명과 정우성 친선대사가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 참여해 레바논, 이탈리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들을 만난 경험을 관객들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함께하는 난민 무료 건강검진 클리닉

지난 5월 20일 전라도 광주에서 국내 거주 난민과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클리닉이 열렸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난민 NGO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Migration to Asia Peace, MAP)'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80여 명의 난민들이 혈액검사, 엑스레이검사, 응급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치과 등 다양한 분야의 의료 검진과 상담을 받았고, 모든 진료부스에는 통역 인력이 배치되어 원활한 검진을 도왔습니다. 2006년부터 국내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해온 삼성서울병원 의료지원/사회공헌팀 담당 윤희 교수는 "국내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곳을 찾던 차에 국내 거주 난민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 클리닉을 열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 김영아 대표는 이번 행사가 "대중들에게는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는 좀 더 현실적인 방안과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의료 검진 사전 단계에서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난민 건강 실태 설문조사는 국내 거주 난민들의 건강 데이터를 구축하고 추후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데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FC 바르셀로나와 함께하는 #Sign And Pass 캠페인

유엔난민기구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과 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주니어 등이 소속되어 있는 스페인 축구구단 FC 바르셀로나와 함께 #Sign And Pass 글로벌 서명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자로 캠페인에 서명한 리오넬 메시는 "전 세계 수백만 난민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힘겨운 현실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Sign And Pass 캠페인 홈페이지(signandpass.org)에서 서명을 완료한 사람들은 자신의 SNS로 주변 지인들에게 캠페인을 알리고 서명 참여를 독려할 수 있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서명은 2018년 난민을 위한 UN글로벌 컴팩트 채택을 목표로, 전 세계 난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난민의 안전한 주거, 교육, 생계를 옹호하는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독수리 기독교학교 국토 순례 후원금 전달

"힘들어도 제 걸음걸음마다 난민을 돕는 데 기부가 된다는 사실에 없던 힘도 생겼어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독수리 기독교학교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경상남도 남해에서 진행한 국토 순례 행사를 통해 모은 후원금 53,344,600원을 지난 6월 8일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약 83km에 이르는 순례길에 오를 학생과 교사 143명이 매 1km를 걸을 때마다 이들의 가족과 친지, 지인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모아졌고 총 1,900여 명이 후원에 참여하였습니다.

국토 순례 행사에 참가한 학생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내전, 그리고 난민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며 힘든 행군을 감수하는 마음과 태도로 완주할 수 있었고 또 행사를 통해 얻은 기부금을 유엔난민기구에 전달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몸소 깨달을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독수리 기독교학교가 전달한 소중함 후원금은 유엔난민기구가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2018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쉼터 캠페인의 일환으로, 탄자니아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난민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거처를 제공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하는 난민보호 캠페인

6월 20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6월부터 약 3개월간 유엔난민기구와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이 함께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6월 10일 시흥점을 시작으로 파주점, 여주점, 부산점을 순차적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매 주말마다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서는 난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전 세계 난민들의 상황에 관한 OX 퀴즈를 맞히는 워터드랍 이벤트, 난민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매일 반복하고 있는 힘겨운 여정을 조금이나마 체험해볼 수 있는 물 나르기 체험, 난민들이 겪는 폭격과 피난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가상현실(VR) 체험과 실제 난민 산모들이 사용하는 출산키트를 사용해볼 수 있는 출산보조용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일정

시흥점	6월 10-11일, 17-18일, 24-25일, 7월 1-2일
파주점	7월 8-9일, 15-16일, 22-23일, 29-30일
여주점	8월 5-6일, 12-13일
부산점	8월 19-20일, 26-27일

유엔난민기구 eCentre 워크숍 안내

유엔난민기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주의/개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정부 및 민간단체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인도주의적 협상, 현장에서의 안전 및 위기관리, 국제 인도주의 대응의 기초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오는 9월 태국 후아히에서 안보 리스크 관리(Security Risk Management, SRM) 워크숍, 10월 국제 인도주의 대응의 기초 워크숍(Basic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sponse Workshop, UNHCR-BIHR)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2017년 워크숍 참가자 미니 인터뷰: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권정화 님

Q1. 본인 소개와 워크숍 신청 계기를 전달 부탁드립니다.

국내 130개 NGO단체들의 협의체로서 국내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정책 제언과 형성과정에 참여하고 NGO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역량강화에 힘쓰고 있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의 권정화라고 합니다. 인도적 지원 활동가들을 교육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교육 구성을 경험하고 다양한 국가의 교육생들과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Q2. 워크숍 참석 소감을 간단히 남겨주세요.

작년 10월 참석한 '국제 인도주의 대응의 기초' 워크숍에서는 인도적 지원 분야의 역사, 국제법, 활용 기준을 비롯해, 책무성, 개인안전, 젠더 등 국제 인도적 지원 분야 내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면서 17개국 참가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었고, 올해 3월 진행된 '인도주의 협상의 필수 원칙' 워크숍을 통해서도 인도적 지원 활동 시 요구되는 협상기술이 무엇인지,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배우고 '대화', '경청', '이해'와 같은 요소들이 인도적 지원 활동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깨닫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Q3. 어떤 분들에게 워크숍을 추천해주시고 싶으신지, 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인도적 지원 실무를 1-2년 정도 담당하셨던 분들, 특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볼 기회가 별로 없었던 분들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제 인도적 지원 교육 프로그램 중 좋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난민기구의 eCenter 워크숍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NGO 활동가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unhcr@unhcr.or.kr로 전달 바랍니다.

후원자 Q&A

Q. 제가 '가장 필요한 곳'이라는 곳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기금인가요?

A. 전 세계 128개국(2016년 말 기준)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비지정 기금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매년 어떤 곳에 도움이 필요한지 계획을 세워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난민 등록, 임시 거처, 물과 식량, 비식량 물품(담요, 물통, 방수천, 모기장 등), 교육 및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 기금이 사용됩니다.

지난 2016년 기준, 한국 후원자의 약 87%가 이 기금을 통해 전 세계 난민 가족들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필요한 곳'에 기금은 갑작스러운 난민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고 현장 상황에 맞춰 가장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Q. 나의 후원금은 난민들을 위해 어떻게 사용될까요?

A. 한국 후원자분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전액 난민을 포함한 유엔난민기구의 보호대상자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적인 난민 보호 및 지원 활동에 사용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모금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여러분의 후원금이 아닌 유엔난민기구 본부로부터 받은 별도의 예산에서 집행합니다.

2017년 6월 유엔난민기구 제네바 본부에서 발행된 2016년 글로벌 리포트(Global Report 2016)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는 2016년 전체 가용 기금 중 86%에 해당하는 기금을 보호대상자들을 위해 각 지역 현장에서 물과 식량, 임시 거처, 의료 등 생존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과 생계, 영구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직접적인 난민 보호 및 지원 활동에 사용하였습니다.

전체 가용 기금 중 8.5%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위해, 5.6%는 본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엔난민기구 본부의 고유 활동 예산을 통해 집행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6년 연례보고서를 참고하세요.

*보다 자세한 2016년 재정보고는 우측 QR코드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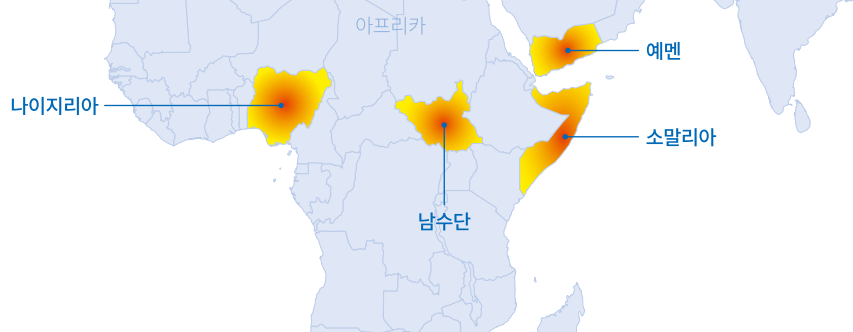
기아 위기 4개국 긴급구호

유엔난민기구는 72시간 이내에 최대 60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키우던 소를 비롯해 모든 것이 눈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이라도 먹여 살리려고 남편과 부모님을 고향에 두고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소말리아 난민 아이샤-



2017년 6월 현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에서 2,0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오랜 분쟁과 가뭄으로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기근으로 4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이는 2016년 초에 비해 21%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빠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1년 동아프리카에서 26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기근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 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난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 굶주림 가운데 수일을 걸어난 이들 중 많은 수가 영양실조 상태로

난민촌에 들어옵니다. 오랜 사회 불안과 가뭄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장기화된 난민 위기 지역 중 하나인 소말리아와 그 주변국에서는 약 94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 최빈국 중 하나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아이들의 혼란, 강제 노역, 구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다른 인도주의 기관들과 협력하여 영양, 의료, 물과 위생, 법적 보호 등 필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지역의 만성적인 기금 부족은 유엔난민기구의 협력 기관인 세계식량기구(WFP)의 식량 배급을 국가별로 20-50%, 많게는 75%까지 삭감해야 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나이지리아, 남수단, 소말리아, 예멘에서 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은 약 1조8천2백39억 원이며, 5월 말 기준 필요 금액의 15%만 모금이 된 상태입니다.

당장 기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목숨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기아로 위협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참여로 한 난민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간다 난민촌에 머물고 있는 한살배기 남수단 난민 다타(Data)가 엄마품에 안겨 영양실조 검사를 받고 있다. © UNHCR/JIRO OSE



영양실조에 걸린 예멘 국내실향민 5세 샴하(Shamha)가 치료식인 플럼피넛을 받아서 먹고 있다. © UNHCR/Hugh Macleod



이동 과정에 있는 남수단 난민 아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공급받기 위해 밀 쿠폰을 받아 보여주고 있다. © UNHCR/Diana Diaz

기아 위기 4개국 긴급구호

“분쟁과 기근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난민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후원 신청서

신규 후원 신청을 희망하거나, 기존 후원자 중 추가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정보

이미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_____ 생년월일 _____
 휴대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후원자님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명 _____ 예금주 생년월일 _____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기금선택 전 세계 긴급구호 — 남수단,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예멘 등 기아 위기 지역 가장 필요한 곳에 시리아 긴급구호 쉼터 캠페인

- 후원금액 100만 원이면, 난민 다섯 가족에게 경량텐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1회만)
 50만 원이면, 난민 3,000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의료키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회만)
 20만 원이면, 난민 열 가족에게 비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방수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10만 원이면, 난민 열 가족에게 취침용 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매월 1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기타(정기 일시) _____ 원

이 내용은 후원금 사용 예시이며, 보내주시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각 지역의 수요 및 모금 현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름호 소식지를 참고하세요.

*정기 후원자가 일시후원하는 경우, 본인의 정기후원금에 위의 일시후원금이 1회만 더해져 출금되며, 약정서가 본인의 정기출금일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익월에 출금됩니다.

*출금일에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당월 25일(10일 출금) 또는 익월 5일(20, 25일 출금) 1회에 한해 재 출금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예금주 _____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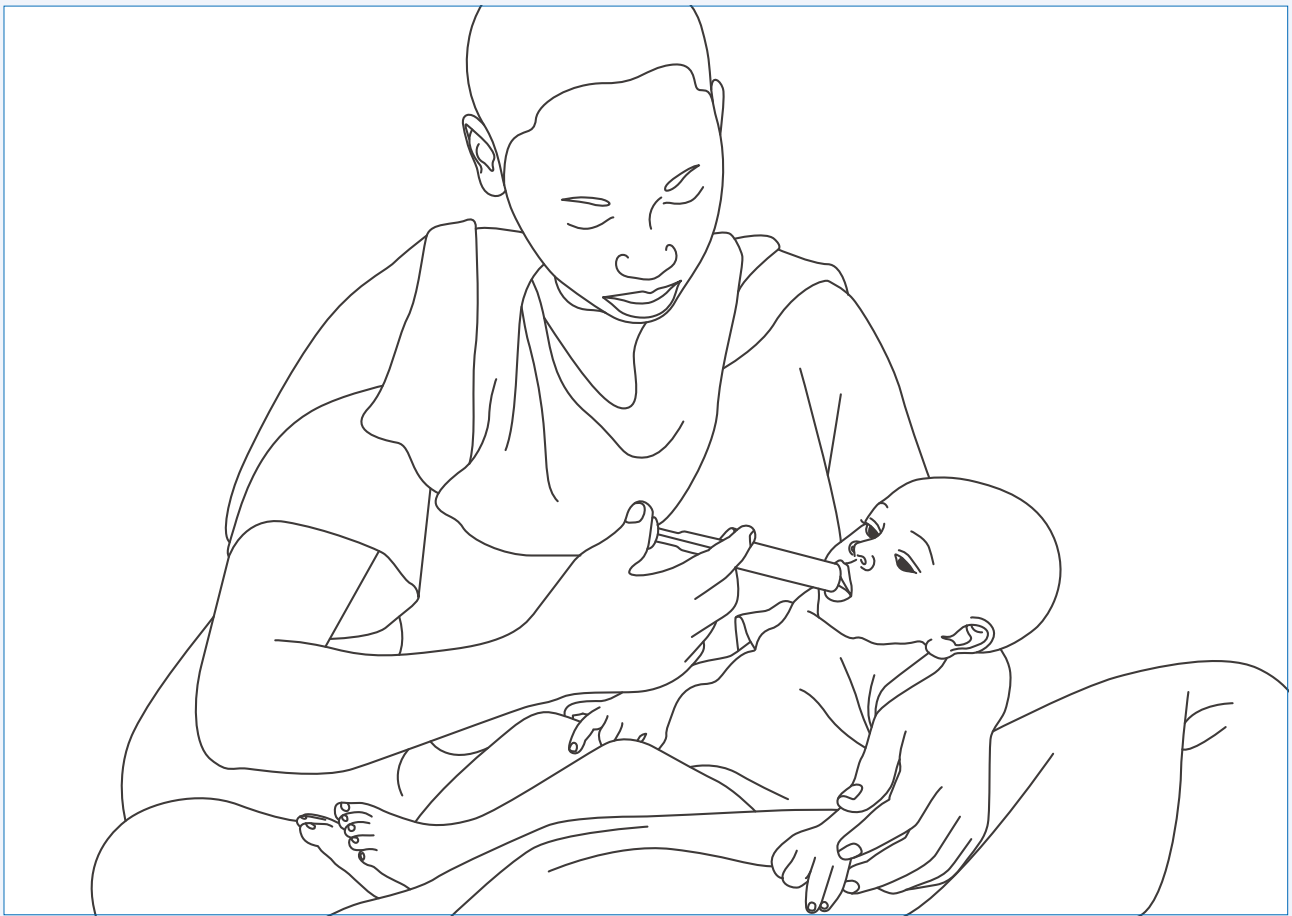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난민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나의 메시지 “우리 아프지 말자”

남수단 어머니가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를 품에 안고 주사기를 이용해 치료식을 먹고 있습니다. 영양실조와 설사병으로 인해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못 먹던 생후 11개월 된 이 아기는 남수단 마반(Maban)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겨우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민 아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메시지와 색상으로 채워주세요!



© UNHCR/B.Sokol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7)로 '2017 여름호/후원자명/우편물 받으실 주소(예: 2017 여름호/홍길동/서울시 중구 무교로 6)'를 기재하여 7월 말까지 보내주신 분 중 일부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호 퀴즈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후원자분께 감사드립니다!